

농약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정부 · 농협 · 농민에 대하여

李 碩 柱
(농약공업협회 상무이사)

영농기술이 과학화됨에 따라 농약의 중요성이 점점 제고되어가고 있고 또 농약이 식량증산의 필수자재로 등장됨과 함께 그가 지니고 있는 특성때문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수도 있다는것은 부인할수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약관리법을 강화하여 생산·유통·사용등을 규제하고 있고 제조업체와 더불어 품질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계도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78년도 농약사용으로 인한 쌀증수효과가 22.1%로 나타났는데 이는 쌀로는 920만석,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실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있는셈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식량증산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농약업체가 유사업종

인 제약이나, 비료, 농기구업체와 비교해 볼때 기업의 이윤이 적을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또한 좋지 않아 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원인은 농약의 소비가 그해의 기상상태에 따라 좌우될 뿐 아니라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 되지만 자금의 회수는 극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약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있는 농약공해등 여론을 감안할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 되어야만 하겠다.

농약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정부, 농협, 농민에게 농약정책·유통·사용등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부에게

1. 현행 농약허가 검토기준을 보면 「신농약의 허가는 2개소 이상의 포장에서 약효시험을 하되 1개소 이상은 대조약제 보다 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1개소는 대조약제와 비등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조약제는 최근에 개발된 농약으로서 대체로 많이 쓰이는 농약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농약이라 할지라도 여러번 반복시험에서 대조약제보다 유의성을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신농약 개발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위와같은 검사방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더우기 선진국에서 9년~12년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생물학적, 이화학적시험을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농약의 원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지역적응시험 정도로 대조약제와 비등만하면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농약의 비축제를 실시하고 생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농약은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3월~7월까지 5개월동안에 연간 소요전량을 생산·공급해야 됨으로 원·부자재 및 포장자재의 적기확보와 이에 소요되는 많은 자금을 일시에 구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절생산에 따른 판매자금의 회전둔화로 생산자금의 압박이 심해 자금차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따른 이자부담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농약도 비료 및 농기구와 똑같이 싼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농약비축제를 실시하여 「계절생산」에서 「연중생산」으로 확대시켜 노동력과 자금을 분산, 농약생산공급에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3. 지금까지 농약가격 산정방법을 보면 정부가 농약사용자인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내물가 상승률을 고려치 않고 가격을 책정하여 왔기때문에 업계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온게 사실이다.

물론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업계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증산대열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선까지는 기업이 유지되어야 증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저렴한값에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건하에서는 극히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농약가격은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책정하여 현실화시켜주어야 한다.

또 정부의 공공요금, 노임, 운반비용이 농약가격책정후 인상되더라도 추가 계상해주어야 하며, 변동환율에 의한 「가격연동제」를 실시하여 본의 아닌 업계의 손실을 방지해주어야 한다.

4. 현재까지 유효기간 경과 농약을 회수하여 제조자가 무상으로 재가공해서 납품하고 있는 방법을 점차 지양해서 재가공비용을 정부 또는 농협측에서 부담해주기 바란다.

농협에게

농협은 전국에 방대한 조직을 갖고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방대한 사업중에 식량증산을 높이기 위해 농약 총생산량의 68% (79년 기준)에 달하는 620억원의 농약자금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에도 어려운점이 많겠지만 농협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도 많은 애로점이 있다.

첫째는 납품계약조항을 업계의 여

건을 감안해서 조정해주기 바란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납품계약서 내용을 보면 납품기한이나 재가공납품 조항은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은 제철상품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요예측을 하기 어려운 영농 필수자재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시중판매상은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안요소 때문에 이미 제조한 농약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서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해마다 많은 지체 상금을 물고 재가공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필요이외의 손실을 보고 있는것이다.

둘째로는 일선 시·군조합이나 단위조합에 농약판매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선입 선출제를 철저히 실시해 줄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농약성수기에 일선 단위조합에 가보면 농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선입사원이 농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같이 선입사원이 농약을 취급하는 이유는 농약자체가 원래 유독한 물질이어서 냄새도 고약하지만 취급하기가 어려워 경력사원이나 유능한 사원은 아예 취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사

러가서 농약 사용법등을 물어 봤을 때 좋은 답변이 나오리가 없고 농민들은 농협보다 시판상에서 농약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선입선출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유효기간 경과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농협농약은 정부나 제조업자의 입김에 의해서 확보하는것이 아니고 일선 단위 조합에 신청한 물량만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수역원어치씩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구입한 농약은 창고 안쪽 깊숙히 밀어 넣고 다음해 새로 구입한 농약은 창고입구에 쌓아두기 때문에(창고의 협소, 인적부족등 부득이한 요건도 있겠지만) 우선 취급하기 쉬운 입구에 있는 농약부터 판매하기 때문이다. 농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위해서도 이같은 선입선출을 보다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셋째는 농약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기 바란다. 근년에 농약대금 지불상황이 좋아진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해에 지불해야할 대금이 올해에 와서야 지불된것이 약 40억원이나 되고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농약은 제조자측과 일정한 회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일제히 회수토록하여 수시반품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힘써

주기 바란다.

농민에게

농약은 의약품과 달리 자연상태하에서 야외에 살포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그때그때 기상환경요인에 따라 방제효과가 똑같을수도 없으며 이론과 일치되기도 어려운 농약자체의 특이성을 안고 있다.

조제상의 미숙, 살포량의 과·소, 살포방법 및 시기의 잘못등으로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약해가 발생하는 수도 있으며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같은 어려움때문에 당국에서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제정하여 제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도 농약명, 희석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을 농약포장지마다 인쇄하여 첨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되는 제초제병은 3선 각선과 제초제라는 백색글자를 넣어 다른 농약병과 쉽게 구별할수 있도록 하여 농약안전사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 실수요자인 농민들은 자기포장에 병충해가 발생되면 무슨 병충인가를 잘 관찰하여 여기에 적합한 농약을 구입하고 또 농약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히

읽어본 후 그 내용대로 조제하여 사용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실제 농촌에 가보면 눈가늠으로 물과 원액을 혼합하여 뿌리는 수가 많으며 어떤 농민은 약효가 없다고 물한말에 정량의 몇배되는 원액을 넣고 희석하여 반당 10말(대두)을 뿌려야 될것을 5말정도만 뿌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어떤 농민은 여러가지 농약을 섞어서 뿌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해서 아무농약이나 마구 섞어서 살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한 농약의 효과는 과연 어떠한가.

틀림없이 약효는 없고 약해만 발생했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생긴 실화 하나를 소개한다. 金씨와 朴씨가 논 두령을 경계로 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金씨가 마침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눈에 못나갔다가 어느날 간신히 눈에 나가 보니 다른사람의 눈은 괜찮은데 유독 자기눈과 朴씨

눈만이 멀기가 많이 발생된것을 보고 깜짝놀라 마침 옆에있는 朴씨더러 『왜 자네는 멀기약을 안뿌렸지』하고 물으니 朴씨말이 『마침 돈이 없어 차일피일 하는 중일세』 그래서 金씨는 그럼 마침 잘 되었네 내가 몸살이나서 농약을 뿌릴수 없으니 내 자네에게 돈을 출테니 내논과 자네논에 뿌릴만한 양의 농약을 사서 자네가 우리논까지 좀 뿌려주게나, 이렇게해서 두사람 다 농약을 뿌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일후 눈을 돌아보니 같은 사람이 같은날 같은 농약을 뿌렸는데도 金씨눈은 깨끗하고 朴씨논만 누렇게 약해가 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朴씨더러 같은 날에 똑같은 농약을 자네가 뿌렸는데 왜 자네논만 누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우리논은 농약을 진하게 타서 많이 뿌렸지』하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농약은 잘쓰면 약이되고 잘못 쓰면 해가 되는 것이다.

